

■ 동계체전 이틀째



더 높이

▲ 박국현(전남스키협회)이 22일 강원도 용평에서 열린 동계체전 남자 일반 부 스노보드-하프파이프 부문에 출전, 화려한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용평=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이성훈 광주에 첫 메달

쇼트트랙 남대부 3,000m '은'

광주가 대회 이틀째 기다리던 첫 메달을 획득하며 본격적인 득점행진에 나섰고, 전남은 첫날 순위에 이어 스카 크로스컨트리에서 3개의 메달을 따내며 종합순위 6위를 향해 승승장구를 펼쳤다.

이성훈(한국체대4)은 22일 제88회 동계체육대회 둘째날 고양 어울림누리스케이트장에서 열린 빙상 쇼트트랙 남대부 3,000m에서 5분04초 18로 은메달을 따내 광주에 첫 메달을 안겼다.

광주컬링연맹은 경북의성 컬링장에서 열린 여자일반 2회전에서 전남과학대를 10-9로 제압하고 동메달을 확보했다. 이외에 광주는 첫날 부진을 털고 스카 크로스컨트리 남중20km계주에서 7위로 결승점을 통과했고, 남자일반부와 여자일반부도 각각 4위

를 기록해 광주에 소중한 접수를 안겼다.

전남은 대회 첫날 금메달을 따낸 김지민이 팀 동료인 김한비·이원지·이유진·조선영·최연희(화순초)와 호흡을 맞춰 응봉고령지농업연구소내 크로스컨트리경기장에서 열린 스카 크로스컨트리 여자 6km계주에서 21분 39초 3으로 은메달을 따냈다.

동신대는 스카 크로스컨트리 여자일반부 15km계주와 남자대학부 40km계주에서 각각 47분11초 2, 1시간 43분 41초 3을 기록해 은메달과 동메달을 따내 전남 상승세에 힘을 보탰다.

또 권오봉·장영화·최미선(동신대)은 바이애슬론 여자일반부 15km계주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23일 광주는 피겨 여부여 문영화(성신여대1)와 컬링에서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으며 전남은 엄유래(동신대)가 피겨에서 3연패를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용평=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왼쪽부터 나연희·자매, 이원지·원태 남매, 이호웅·호영 형제.

/용평=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누가 누군지 정말 헛갈리네”

전남 쌍둥이 선수들 화제

제88회 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하고 있는 전남선수단에 쌍둥이가 자매, 남매, 형제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알파인 남자일반부 전종목에 출전한 이호영(전남스키협회)·이호웅(동신대학)과 2)형제와 여중 크로스컨트리 나희·나

연(노안중)2)자매, 크로스 컨트리 남초·여초부에 출전하고 있는 이원태·이원지(화순초) 남매가 그 주인공.

특히 이원태와 원지는 이란성 쌍둥이로 구분이 가능하지만, 이호영·호웅 형제와 나희·나연자매는 일란성 쌍둥이로 따로 만나면 누가 누구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

타 시·도선수들이 이를 형제와 자매선

수들을 구분을 하지 못해 웃지 못할 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나희·나연자매는 지난 1월초 스카에 첫 입문, 융계체육대회 크로스컨트리 부문 완주에 성공하는 기염을 토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태권도를 시작해 공인 2단의 태권소녀인 이들자매는 이대영(노안중 교사) 전남스키협회 전무이사의 권유로 스キー를 시작했고, 채 두 달이 안돼 이번대회에서 완주, 꿈나무로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이원태·원지 남매도 지난해 12월말 스��에 입문한 스キー 왕초보. 하지만 이원태는 지난 7일부터 3일간 강원도 용평스키장에서 열린 제37회 회장배 전국스키대회 초등부클래스(3·4학년부문)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따내 관계자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이번 동계체전에서는 5·6학년 선배들과 함께 기량을 겨루어 아쉽게 메달획득에는 실패했다.

이호영·호웅 형제는 초등학교 2학년때부터 스キー를 즐겼으며 문성중학교때부터 본격적인 선수활동을 시작했다.

이들 형제, 자매, 남매 쌍둥이들은 이번 대회에서 순위에 들지 못했지만 스끼불모지인 전남동계스포츠 기대주로서 내년 89회 동계체전에서 메달획득 기대를 높이고 있다.

/용평=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동국 자신의 가치 보여야 발탁”

베어백 감독 귀국 “대표팀·올림픽팀 동시 지휘 문제없다”

‘지금이 최상의 조합이다.’
핀 베어백(51) 축구 국가대표 및 올림픽 대표 감독이 ‘두 집 살립’에 대한 주변의 우려를 한 마디로 일축했다.

한국 축구는 월드컵이 열리지 않는 해인 2007년 아시안컵 축구 본선(7월)과 2008 베이징올림픽 아시아 예선(2월~11월)이라는 두 가지 큰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성인대표팀과 23세 이하(U-23) 올림픽대표팀은 모두 베어백 감독의 지휘를 받고 있다.

당장 28일부터 올림픽 예선이 시작되고 3월 24일에는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와 새해 두 번째 A매치가 잡혀있다. 그 전에 올림픽 예선 원정경기도 치러야 한다.

축구계에서는 베어백 감독이 두 팀을 통

시에 이끌어 가는 게 빽빽한 일정과 업무의 부하로 볼 때 지나치게 과중하지 않느냐는 시선도 있지 않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을 앞두고 허정무 감독이 대표팀과 올림픽팀을 동시에 맡은 적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두 팀의 코칭스태프가 별도로 운영돼 왔기 때문이다.

유럽·중동 출장을 마치고 22일 돌아온 베어백은 이에 대해 자신의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표팀의 운영 방식을 올림픽팀이 준용하고 있다. 올림픽팀 선수들은 대표팀을 향해 계단을 밟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내게는 활성적인 코칭스태프가 있다. 최적의 조합이다”고 했다. 유럽에서도 심지어 클럽 코치가 20세 이하 청소년팀을 지

도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면서 ‘총괄 지도체제’의 장점을 응호했다. 특히 다른 코치를 영입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아예 못을 박았다.

그는 “K-리그 일정을 꼼꼼히챙겨보니까 매주 두 번씩 꼬박꼬박 경기 있더라. 그러면 선수들이 대표팀에 소집되더라도 리듬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도대체 문제될 것이 무엇이나”고 반문했다.

베어백은 또 “3월 24일 우루과이와 새해 두 번째 A매치에 이동국(28·미들즈브러)을 뽑을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동국이 앞으로 미들즈브러에서 경기에 출전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일 때 대표팀 발탁을 신중히 고려하겠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에게 분명히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백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내 공이야”

22일 오후 강원도 춘천호반체육관에서 열린 여자프로농구 우리은행과 금호생명의 경기에서 우리은행 캐칭(오른쪽)과 금호생명 비어드가 치열한 볼디툼을 벌이고 있다. 우리은행이 88-58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최경주 4년만에 32강 진출

세계 8위 스텐손과 맞대결

PGA 악센추어 매치플레이



만나는 바람에 16강 진출이 무산됐던 최경주는 세계랭킹 8위 헨리 스텐슨(스웨덴)과 2회전을 치르게 돼 이번에도 3회전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

스텐슨은 지난 달 유럽프로

골프투어 두바이데제트클래스에서 우즈와 어니 엘스(남아공) 등을 꺾고 우승하는 등 만만치 않은 실력을 지녔고, 특히 중동 사막코스에서 좋은 성적을 올려 역시 애리조나 사막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다.

PGA 투어에서 첫 선을 보인 양용은은 로드 펩플링(호주)에게 5홀차 원패를 당해 아쉬움을 남겼다.

우즈는 1회전에서 J.J. 헨리(미국)를 3홀 차로 제압하면서 대회 세번째 우승을 향해 시동을 걸었다.

/최재호기자 lion@

“세계선수권서 못해도

실망하지 말아주세요”

‘피겨여왕’ 김연아 인터뷰

“세계피겨선수권대회에서 제대로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말아주세요”

허리 디스크 치료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김연아(17·군포 수리고)가 제88회 동계체전과 3월로 예정된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피겨선수권대회 출전을 앞둔 각오를 밝혔다.

김연아는 22일 오전 강남구 신사동 자생한방병원(원장 신준식)에서 허리치료를 받은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방치료를 받고서 통증이 많이 없어져 연습시간을 늘리고 있다”며 “체력훈련과 균형운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통증이 재발할까봐 조심하고 있다. 매일 5시간 정도 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연아는 이어 “TV나 인터넷으로만 봤던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는 게 떨린다. 관중도 많을 것 같아 긴장이 된다”며 “첫 출전이라서 부담은 없지만 연기를 잘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그동안 연습을 제대로 못했는데 넘은 시간까지 연습을 충분히 해서 좋은 경기를 치르고 싶다”며 “혹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도 팬들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백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KIA, 요미우리 2군에 대패

KIA는 5회 김상훈의 깊은 유격수 앞땅볼 때 좌의선상 2루타로 출루한 홍세완이 훔을 밟은 게 유일한 득점이 됐다.

선발 투수로 나선 임준혁은 2이닝 5피안타 3사사구 5실점(5자책)을 기록하며 패전투수가 됐다.

주축 타선이 출전한 KIA는 요미우리 마운드에 놀려 4안타, 3볼넷, 1득점에 그쳤다.

톱타자로 나선 이종범(3타수 1안타), 6번 홍세완(4타수 1안타), 9번 이현곤(2타수 1안타)이

각각 1안타를 기록했다.

KIA는 22일 일본 미야자키 선마린 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 요미우리자이언츠 2군과의 첫 연습경기에서 1-6으로 대패했다.

주축 타선이 출전한 KIA는 요미우리 마운드에 놀려 4안타, 3볼넷, 1득점에 그쳤다.

2번째 투수 전병우는 2이닝 2피안타 1실점을 기록했고, 3번째 투수 김희걸은 2이닝 1피안타, 4번째 투수 진민호는 2이닝을 퍼펙트로 막아냈다.

/백진표기자 lucky@kwangju.co.kr